

## **B-1 성인형 치주염 환자에서 흡연이 비외과적인 치주처치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Smoking on Adult Periodontitis after 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

박영채\*,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I. 연구목적**

치주질환의 발생과 진행은 음식, 치석, 치아우식증, 수복물, 흡연 등과 같은 몇가지 국소인자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이중 오래전부터 흡연과 치주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흡연은 뇌혈관계 질환, 심맥관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로 알려졌고 구강내의 치주건강에 위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흡연은 치주염의 유병율과 심도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치조골의 소실과도 관련이 있다. 숙주에 대한 흡연의 전신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말초혈액과 구강내 중성구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항체생성을 억제시키며 기관지폐포와 말초혈액 면역억제 T세포 아종 비율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주질환의 국소적인 원인인자로 생각되는 흡연이 비외과적인 치주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가와 비흡연가의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주낭 깊이와 같은 임상지수와 세균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 **II. 연구방법**

40명의 환자에서 치주낭깊이가 5mm 이상인 한 부위를 실험부위로 선정하였다. 흡연 환자를 실험군으로하고 비흡연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실험 시작전에 임상검사와 치은연하 치태의 위상차현미경 검사를 실시한 후 치은연상 치석제거술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대상 치아에 대해서는 국소마취하에 치근면 활택술을 실시하였다. 임상검사와 위상차 현미경 검사는 치석제거술과 치근면 활택술 실시전과 후 1주, 2주, 및 4주에 시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1.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주낭 깊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비외과적인 치주처치후 기준

(0주)과 비교하여 현저한 치유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임상지수는 흡연가에 비해 비 흡연가에서 더 현저한 변화를 나타냈다.

2. 4주째 비운동성 간균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증가를 나타냈으나 나선균은 대조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성인형 치주염 환자에 대해 비외과적인 치주치치후 흡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치주질환의 국소적인 원인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